

‘시민 행복이 남원의 내일’... 현안 추진에 전력

‘위기를 기회로’

남원시 전 공직자는 지난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념통천(一念通天)’, ‘시민의 행복이 남원의 내일입니다’라는 시정목표로 관광, 지역경제, 교육·복지, 농업 등 각 분야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 했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과 유례 없는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시민들의 협력과 배려, 시민 중심의 행정력까지 수반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은 남원시를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2019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복 1위 최우수기관, 3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만들었으며,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이환주 시장은 ‘2020지방자치행정대상·지방의회회정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동'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중요로운 농촌 만들기 '주력'

지난해에도 국내외 농산물 시장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우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약 1만여 농가에게 연 1회 6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기존 직불금제도를 통한 개편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도 시행, 1만 1천여 농가에 262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수해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팥은 지난해 전국 5대 브랜드 도약을 목표로 연초부터 합작체 움직여 온 결과 859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육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모 사업’에 남원 아영 2지구(아곡, 봉대, 인중)가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 고품질 과실 생산과 농업 경쟁력 향상,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올해부터 2년동안 수해면적 40ha에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요로운 농촌환경 만들기 위한 운봉·산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주생 대지마을 등 7개소 마을만들기 사업도 추진, 농촌마을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문화자원을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 농촌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마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 운봉읍 동편재마을이 전북도 ‘2020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2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구서도역 환경정비와 불거리, 체림시설을 추가 조성해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친절한 소통행정 '인척'

이환주 시장은 민선7기 취임 이후 매우 친절하고 남원시정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소통행정을 실천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도 전문가에 의뢰해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친절소통행정 안착을 위해 애썼으며, 지난해 청년정책담당을 신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협의체를 구성, 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청년이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과 도로환경개선에 나섰다. 도심지 4곳(운봉, 동중, 죽향, 향교)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시설물 LED 로고젝터 185개소에 설치하고 마을 방범용 CCTV 50개소 300대를 추가 설치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갔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3억9000만원을 획득했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수해 극복

남원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유례없는 집중호우피해가 발생하자 11개 읍면동 573가구 주택침수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513억원을 확보한 만큼 향후 재난사태를 대비해서 설계단계부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항구적 설계로 수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듯 2020년 남원시정은 힘든 재난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소통밀착 행정부터 각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이뤄내는 등 ‘남원발전의 대도약’에 한발 다가섰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 19감염증 확산과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시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불굴의 의지로 시민 모두가 협력,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 지난해 시정 성과를 토대로, 전 공직자들과 함께 올해에도 더욱 힘차게 도약, 더 큰 남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10억) ▲가족센터(39억) ▲왕정공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24억) 등이 있다. 특히, 당초 정부예산 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예산(국비 11.85억 반영)과 ▲광한루원 동문 확장사업(국비 3.5억 반영) ▲남원읍성 종합정비사업(4.9억 증액) 등 10개 사업 국비 46억원을 국회단체에서 추가 확보함으로써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도시 '완성' 본격 추진

남원시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광한루원 주변 5개 지구에 전통한옥 숙박단지 및 예촌길, 전통가 조성사업 등을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고 광한루원과 구도심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형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또한, 순수 민간자본 383억원을 투입해 남원관광지 내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김병중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총 연장 2.44km의 관광형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주변에 80m 높이의 짚타워에서 출발하는 2개 코스의 짚아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인 남원관광지민간투자개발은 지난 7월 기공식을



갖고 공식화했다. 국비 60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관광단지 리플렉스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20여년간 폐건물로 방치된 구 비사벌 콘도 건물 등을 문라이트 파크로 재생시키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남원시가 오랜 기간 공들여온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에 2021년도 국토교통부 사업비 예산 4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경차 산악열차 도입과 지리산권 중심 산악관광 거점 조성기 가시화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및 기존 동부권 지역 내 관광시설과 연계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확대 등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남원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에, 지난해 슬기로운 행정력을 펼쳤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감염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경제 대책본부' 체제를 가동,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지원, 문화·관광, 농업, 교통 등 각계각층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피해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추진, 코로나 여파를 최소화시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도 타 지자체와 달리 5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상품권 대신 선불카드를 선택, 타 지자체보다 2주 앞당겨 308,321세대에 총 231억원을 지급했으며,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시 자체예산을 편성,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은 가계를 도왔다.

남원사랑상품권도 성공적으로 안착, 11월말 기준 총 1,400억원 발행해 1,070억원 판매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 공공요금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도 힘썼으며,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총 12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94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장기적으로는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반 마련에 힘썼다. 기업력이 좋은 회사를 마련하기 위

남원형 일반 산단 조성 등 완료

나머지 사업도 정상 추진 중 국가예산 2676억원 확보로

시상 최대치... 지난해보다 증액 관광인프라 조성에 '매진'

코로나19 대비 비상경제 대책 수립 남원사랑상품권도 성공적 안착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 써와

해 조성해 온 남원형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1공구 준공을 완료,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유가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주)LF와 모틀러 교실을 생산하는 (주)대승엘엔에스,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하는 (주)CK안전유리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으며, 기 조성된 노안산업단지 3지구 같은 경우 (주)보FG, (주)엘그레이프, (유)엘림산업과 입주 계약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률 90% 달성의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구)주생비행장 부지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추진하는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 유치에 성공하면서, 향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미래 드론산업 육성에 힘을 쓸 수 있는 기반을 완성했다.

맞춤형 복지환경 구축·미래지향 사회환경 조성

남원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건강한 도시라는 신념으로 보편적 복지, 포용적인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 추진으로 한 단계 높아진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썼고, 지난해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도 선정, 향후 풍충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가족센터를 건립을 추진,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 증가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도 개편 시행했다. 기존 노인복지관 이용 수요 증가와 인구 밀집지역 내 노인복지관 부재에 따라 고죽동에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을 올해 착공하여 내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7억7,000만원을 투자해, 노인일자리 경로당 조리사 지원 사업으로 300여명에게 일자리를 창출·지원한 바 있다. 특히, 시민평생학습의 기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했고, 전년대 남원캠퍼스는 오는 3월 개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춘향길 체육공원 확장 조성 사업을 추진, 400m 길이의 러러 로드경자장을 준공하고, 축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실내수영장 등을 본격 착공해 올해 완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남원거점 스포츠클럽은 축구, 탁구, 테니스, 복싱 등 4종목 8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대한체육회 성과평가에서 2년연속 'A등급'을



청년협의체 발대식



집수 피해 복구